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0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1월 14일(목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희망을 말하기엔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악이 여야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나 박근혜정권이 '일반(쉬운)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가이드라인(정부지침)으로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개악도 박근혜정권이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때가 되면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않고서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 고용안정 쟁취!'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에 앞서 조합원동지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지를 믿고 함께 실천하는 투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반(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정부지침)이 발표되고 현장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 '조합원의 개별화'입니다. 자본이 정부의 지침을 들고 나와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찍고 탄압할 때 '나부터 살고자' 동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개별투쟁이 될 경우 노동조합의 투쟁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쟁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함께 팔뚝질하고 노동가를 제창하고 투쟁을 외칠 때 혼자서 아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에서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일반(쉬운)해고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동지애를 느끼고 함께 투쟁하는 총파업 대회 집회에 최대한 복무할 때 가능합니다.

201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투쟁은 '동지애를 느끼는 투쟁', '함께 사는 투쟁', '노동자가 하나되는 투쟁'을 함께 조직하는 희망의 투쟁이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쟁취합시다! 투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 김정태



2015년 투쟁의 기운을 이어
2016년도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갑시다!

채불만 10개월째! 피엘에이 박살낸다!

피엘에이가 10개월째 임금채불을 해결하지 않고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 수차례 임금 지급 약속을 하고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임금을 채불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피엘에이는 2013년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분, 연차수당 등을 채불했다. 채불임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미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했다. 2014년 8월부터는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위로금 (약 1,000만원)으로 조합원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잦은 임금채불로 불안함이 컸지만 조합원들은 지회를 중심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2015년 3월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당당히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본은 임금채불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2015년 4월~6월 임금을 50%만 지급하더니 7월부터는 전액 채불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참지 못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본사 농성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10월, 11월 임금은 지급되었지만 아직도 채불임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월에는 대주주가 바뀌면서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해결 국면을 만드는 듯 했다. 그러나 자본은 다 똑같은 짓거리들을 한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새로운 대주주도 결국 임금 지급 약속을 4차례나 어기면서 지금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피엘에이 자본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주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임금채불로 조합원들 목숨줄을 쥐고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임금 채불해서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든, 노동조합이 임금채불도 해결못한다는 불신을 갖게 만들든 자본은 뒤에서 사악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과도 같은 월급으로 장난치는 자본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피엘에이지회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지들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연대의 손길이 필요하다.



피엘에이에 이어지는 연대

임금채불과 고용불안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엘에이지회에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 소속 지회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고, 지역의 동지들도 다양하게 연대를 해오고 있다.

피엘에이지회는 임금채불 해결! 고용보장! 2015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전면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보니 조합비도 당연히 없다. 그래서 사업장 농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부 결의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회들이 앞다퉈 연대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동지들은 천막농성 250일 넘게 투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피엘에이지회를 찾아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지역에서 더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이어질 것이다. 1년 가까이 임금을 채불하는 악질 중의 악질 자본이라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피엘에이 자본은 금속노조와 지역의 전체 노동자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보쉬전장 사업주 구속 처벌하라!

보쉬전장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신고가 다음주 21일로 다가왔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쉬전장은 2011년 말부터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인 '창조컨설팅'과 결탁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채 벌금형에 그쳤다.

이번 2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 10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처벌의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쉬전장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부 조합원들과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았다. 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전달했다.